

대학 교양무용 수업의 반성적 실천 사례

The Case Study of Reflective Practice of the Liberal Dance Class in University

박지원*, 김제영**, 김지영***

숙명여자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Ji-Won Park(juliapark@sm.ac.kr)*, Je-Young Kim(jykim1101@hanmail.net)**,

Ji-Young Kim(ibps0130@hanmail.net)***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교양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무용 수업에서 교육내용 설계와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사례 연구이다. 이 연구는 15주간의 무용 강좌에서 40명이 참여한 생활무용 프로그램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과 보고서, 수업을 진행한 강사의 평가서를 토대로 수업사례에서의 실천적 의미를 탐구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경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생각하는 춤'의 경험이다. 기능적인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춤의 매력과 감성과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소통하는 춤'의 경험이다. 새로운 동료와의 교체, 소극적인 성향의 극복, 상대를 배려하는 춤의 매너에서 춤을 통한 사회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함께 만드는 춤'의 경험이다. 모둠활동의 구성원으로써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 협동적인 과제 수행에서의 보람을 언급했다.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업의 반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교양교육으로써 무용교육은 학생들의 표현적 개성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초안무를 그대로 답습하고 기능만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양교육으로써 무용교육은 움직임 활동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중심어 : | 교양교육 | 교양무용 | 반성적 실천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actical cases of the reflective curriculum design and the improvement of the dance courses as a general education at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recreation dance program with 40 students participating for 15 weeks. This study is qualitative research to explore the practical meaning and value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interviews and reports of the students and the class evaluation of the instructo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s the experience of 'thinking dance'. Not just a functional movement, but moreover, they could experience the attraction, sensitivity and culture of the dance altogether. Second is the experience of 'communicating dance'. They experienced the sociability from the relationship with new partners, the overcome of the passivity (shyness) and the manner of consideration. The third is the experience of 'creating dance together'. As a member of a group, they could learn the integrity, responsibility and satisfaction in the middle of cooperative task performance. The view from the teacher regarding the class reflective assessment is as followed: The importance of dance instruction is to improve the expressive personality and potentiality of the students. Forcing the students to follow the basic choreography could be exhaustive.

■ keyword : | General Education of University | Dance Courses | Reflective Practice Cases |

I. 서론

대학의 교양교육은 지식의 전문화 뿐 아니라 인성과 창의의 균형 있는 역량을 심어주기 위한 고등교육의 전인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교육의 중요성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 핵심영역이라 할 수 있다[10]. 또한 교양교육은 문화를 향유하고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소양과 품성에 관한 교육으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12].

그렇다면 실제 교양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양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무용 등의 움직임 수업들 중 기능위주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수업형태의 경우, 학습자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저하시킨다는 제한점이 드러났다. 즉, 전통적인 기능중심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자기주도적인 수업형식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흥미나 수업참여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2]. 또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참여 수업은 창의성이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교양수업으로 이루어지는 무용수업의 경우, 무용경험을 통해 동료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유연하게 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기능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수업영역이다[9]. 신체적 움직임이 위주가 되는 수업은 정성적 평가나 관계증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1][4]. 즉, 교양무용 수업 참여가 학습자의 스트레스감소와 정신건강에 긍정적 작용을 하며[3], 높은 성취감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양무용 활동 참여의 동기와 여가만족간의 긍정적인 상관성을 드러내기도 한다[6].

현재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은 어떠한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가? 기존의 교양무용 수업은 교수자의 안무 시연을 기능적으로만 따라가는 교수자 중심의 기능수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움직임

과 기능이 강조되는 무용 수업에서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드높여 줄 수 있는 수업의 설계와 운영이 간과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교양무용 수업은 움직임 위주의 기능적 수업으로부터 보다 높은 층위의 교수 내용과 방법에 의해 실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차원적인 지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기 보다 사실이나 정보를 단순히 전달, 기억하게 하는 교육방식은 학습자들의 참여태도와 만족도를 현격히 떨어뜨린다[8].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형식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일방적인 학습 요구에서 벗어나,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사고를 발전시키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형성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사고 유형의 무용활동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10]

더욱이 현장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무용 교육자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교양수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전공과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시해 주고, 적극적인 동기유발과 긍정적인 참여의 내용을 제공해 주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자의 관점에서 학습 지식을 있는 그대로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교육을 실천하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적용해야 한다[8][7]. 이를 위해서는 수업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과 이를 토대로 한 수업현장의 개선을 순환적으로 이어나가는 실행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과 개선을 통한 변화가 많은 교육의 상황에서 활용되는 교사의 고유하고 전유한 지식을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으로 명명하였다[16]. 또한, 실천적 지식은 각 개인의 경험이 기반이 되어 고찰하는 반성적 지식이자, 이론과 함께 교사의 신념과 가치가 통합되어 실제 교수 상황에서 판단에 관여하고 있다[15]. 따라서 변화를 모색해야하는 대학의 교양무용 수업에 반성적 실천지식들을 토대로 한 연구의 접근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반성적 실천지식을 목적으로 진행된 무용교양 수업에서의 학습자들에게 변모되는 양상을 연구자의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대학 교양무용 강좌에서의 수업설계 및 운영, 교수법과 관련하여 선행될 수 있

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수업사례에서의 실천적 의미를 탐구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로 15주간(1주에 120분)의 무용 강좌에서 40명이 참여한 recreational dance 프로그램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수업의 참여는 각기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수강되었다. 이 수업에서의 활동은 4명으로 각각 구성된 10개의 그룹들을 중심으로 협동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룹의 구성은 상황에 따라 4개, 2개 혹은 전체의 활동으로 변화되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초기에는 친밀감을 높이는 활동(손잡기, 포옹, 인사, 눈맞춤, 파트너 체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레퍼토리의 안무 기초를 배우고, 조별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과 이야기구성하기(Storytelling)을 통해 기초 안무들을 변용하여 각 그룹별로 재구성하거나 협력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방식은 반성적 실천(춤, 말하기, 글쓰기 그리고 생각하기)에 초점을 두었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participants)는 전형적 사례 선택 기법과[18] 이론적 표본 추출[20]을 통해 B대학 교양수업에 참여한 한 클래스의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용경험이 없는 남자14명 여자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학년 22명, 2학년 5명, 3학년 5명, 4학년 8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성별	구분	인원수
	남학생	14
여학생	16	
학년	1학년	22
	2학년	5
	3학년	5
	4학년	8

3.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학습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매주 기록된 학습자의 일기형식의 보고서(글쓰기), 수업을 진행한 교수자의 평가서를 토대로 한 학기 동안의 교양수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반성적 실천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로 개방형 설문, 인터뷰, 회고 등 다중방식 평가(multi-method evaluation)로 진행되었다. 개방형 설문은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핵심적인 개념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개방형 질문의 영역은 첫째, 수업의 교육내용 중 학습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요소로 작용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그룹별 안무 재구성과제 후 변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셋째, 수업의 교육내용 구성 중 조별프로젝트 후 학습자들의 사고의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이다.

자료의 수집과정은 포커스그룹을 대상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이 진행되었으며 중간, 기말고사 후 남은시간과 간헐적 쉬는시간에 평균 4회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을 위한 기획과 준비과정으로 사전에 필요한 논의의 틀을 기획하고 주제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선행하였다[19]. 면담의 방식은 비 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과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의 방식을 혼용하였고 면담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녹취하고 기록 후 내용 교차검토를 통해, 전사내용의 신뢰도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의 분석은 보고서 및 일지 그리고 평가서와 인터뷰자료의 모든 내용을 취합하여 전사 후 분절화(Segmenting)작업을 거쳐 초기코드를 발견하고 심층코드를 생성하였으며 주제별 약호화(Coding)와 범주화를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 개념은 자료의 진실성(trustworthiness)과 관련한다[17]. 첫째, 자료분석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 확보의 도구인 다각기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과정에서 3인의 동료연구자가 서로 검토하여 방법적, 해석적, 그리

고 절차적 오류를 감소하기 위해 전공자들과 정기적인 협의의과정을 통하여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셋째, 응답자의 타당도(respondent validation)를 높이기 위해 분석과 해석 후 도출되어지는 결과를 재평가하도록 하여 연구자들이 표면적으로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추론이 타당한지를 파악하는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를 수행하였다. 넷째, 연구자의 관찰이 주관적인 시각으로 도식될 우려를 고려해 박사과정생이 비정기적으로 수업에 참관하여 관찰자 협의(Inter-observer agreement)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의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들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rapport)가 형성되었으며, 연구 중반부터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Panel discussion)를 통하여 교수1명과 박사2명과의 전문화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보다 현상을 논리적이고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바라보고자 했다.

III. 연구결과

1. 학습자의 경험에서 '춤' 의미

1) 생각하는 춤

기능적인 움직임은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춤이 지니는 그 자체의 매력, 춤의 감정과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무조건 보고 따라 하는 형식적인 모방이나 기능적 수업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구성(composition)하는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과 토의는 집단사고(group thinking)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표현력이 아니라, 내적 활동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 있는 행위라는 것을 체현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무용 수업에서의 경험은 학습자들의 춤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심도 있는 사유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지속하게 한다는 점에서 '생각하는 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생각'은 그것을 제시

하는 교수자의 철저한 수업계획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학습자들의 간접적인 사고 유도와 인지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의 주제는 사진, 시, 연극, 음악, 미술 등 인문적인 내용의 스토리텔링이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생각을 연속시킬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정성적 부분에 심도 있는 교육적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

'조원들과 춤을 구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완성하고 시험볼 땐 그 동안 만들어져있던 춤을 뒀던거와 달리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혼자 했다면 하나하나 구성해야하는 춤동작이 정하기 힘들고 오래 걸렸겠지만, 조원들과 함께하니 시간도 단축되고 동작의 완성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참여자, 8-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춤은 감정이나 무언가를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 존재함도 맞지만 지나간 과거의 시대를 반영해 주는 역사와 같고 생활 속 행동을 제치와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참여자, 5-

'생각을 하면서 춤을 추다보니깐 그 동안 놓치고 지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새로이 느껴지는 것 같아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참여자, 39-

'같이 생각하고 의논하면서, 반복하는 과정의 레크 무용을 하면서 관심 없던 춤에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토의하면서 더욱 즐겁게 몸을 표현 하는 것을 통해 평소 춤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춤의 의미가 달라졌다'-참여자, 1-

2) 소통하는 춤

움직임 수업의 참여는 낯선 타인과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연결지며, 친숙함의 시간을 상대적으로 당길 수 있다고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동료와의 교체, 소극적인 성향(수줍음)의 극복, 상대를 배려하는 춤의 매너에서 춤을 통한 사회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수업

의 성격상, 신체접촉의 자연스러움, 눈맞춤의 상호성 등은 관계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래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교제를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이 사회성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소통하는 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아서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춤을 출 때만큼은 적어도 남들 앞에서 나 자신을 보이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참여자, 23-

‘춤을 통해서 평소의 나와는 또 다른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반응들을 통해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삶이 더 풍부해지고 생기가 사는 것 같아져서 좋아요.’-참여자, 12-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요 정말 같은 조원들끼리도 너무 어색하고 기본적인 스텝을 배우는 것도 서투르고 당황스러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재밌고, 특히 원을 두 개로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한 명씩 짝지어 춤추는 댄스는 수업을 같이 듣는 아이들이 누군지 얼굴도 익힐 수 있는 경험이 되었고 짝을 바꿔서 이동할 때 마다 쑥스러워서 소극적이었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으로 인사하면서 춤을 추게 되었어요.’-참여자, 33-

‘평소에 같은 교수님 수업을 들어도 서로 얼굴 익히기 쉽지 않고 알더라도 인사도 못하는 사이였는데요 함께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져서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참여자, 37-

‘수업이 지나면서 제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터닝 포인트는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점점 춤추는 것을 즐기게 되고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보고 손뼉을 치고, 팔짱을 끼고 신나게 돌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정말 제가 본 제 스스로도 너무 신기하고...’-참여자, 11-

‘마음을 열고 춤을 추다보니 부끄러운 마음은 잊혀지고 4명에서 협동해 다 같이 동작을 맞추는 수업에 조원들과 저절로 친해질 수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이 수업으로 인해 다른 과 친구들도 사귄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참여자, 9-

‘처음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웃으며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에 신기했고 서로 맞춰가면서 실수를 해도 웃으며 넘어가는 거에 더욱 더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참여자, 2-

‘(중략)나아진 것이 있다면 위심도 추기 싫어했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춤 춘다는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다’-참여자, 35-

‘이 수업을 듣고 내 자신이 완전 몸치가 아니고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중략)그리고 다른 여러모로 배울게 많은 수업이었다는 생각이듭니다. 꼭 춤을 좋아하지 않아도 '인상'적인부분이나 단체 활동 뭐 이런 것들도 배울 점이 많았고 사람들과의 사교성에도 너무 내성적인 사람에겐 조금 마음에 문을 열고 외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참여자, 40-

‘처음에 손동작 짜는 것에 대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상한 것 같아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완성하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참여자, 7-

3) 함께 만드는 춤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모둠활동을 통하여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갖게 된다. 움직임의 조합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의 조화를 요구하는 상황은 공동체의 의식을 보다 강화하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과정을 경험하며 친화력을 통한 자신감 회복 및 협동심 증진과 이에 따른 학습의 보람을 통해 수업만족감이 증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함께 만드는 춤’의 경

힘은 구성원으로써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 협동적인 과제 수행에서의 보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4명이 모여서 서로 부족한 점도 보완해 주고 즐겁게 추었고 손동작을 짜야 할 때는 연락해서 먼저 모여 연습 했어요. 모여서 하나하나 다시 되새겨 보며 짜고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서로 좀 힘들었는데 서로 정말 머리를 맞대서 계속 생각하고 수정하고 이리다 보니까 (교수님께) 검사를 받는 시간에는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몇 개의 수정은 받았지만 만족한 결과였어요.’- 참여자, 31-

‘그룹으로 추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면서 쑥스럽지만 서로 함께 무언갈 맞춰 이루어가는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서로 자기가 아는 부분을 알려주고 익히고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고, 함께하다 보니 팀웍이 더 좋아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4-

‘조별내에서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욱 친밀해지게 된다. 여러 사람과의 호흡을 맞춰야 가능한 춤이라 알게 모르게 공동체의 중요성이 상기 된다.’- 참여자, 36-

‘연습미흡으로 동작을 잘못 따라하고 많이 틀렸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혼자였으면 정말로 시범을 안 봤을 텐데 조별 수업을 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고...’- 참여자, 17-

2. 교수자의 관점에서 반성적 실천

1) 학습자의 개성 존중

반성적 무용수업은 교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업장면에서는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이는 각기 다른 전공 영역의 학습자들의 다른 특성과 배경, 취향, 이해도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일이다. 전공 학습에서 제외되거나 강조될 수 없는 것, 즉 학습자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수용해 주는 것이다. 무용의 기초안무와 기능을 투입하는 것은 교수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수업운영일 수 있다는 반성과 함께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움직임에 절대적 가치와 지표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로 학습을 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수자의 상대적인 눈높이는 유능감이 낮은 상태의 학생의 성취를 드높여줄 수 있는 개방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즉, 기술이 화려한 무용수업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표현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적인 수업환경을 제시하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16카운트의 구간동안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학생들의 도전에 감탄하게 된다. 오늘은 눈으로만 담기에 아깝다고 동영상 촬영을 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음악과 학생들의 강점은 무용을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장면처럼 해석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의 구성 조형을 보여주는 듯한 미적 작품처럼, 3조의 구성도 돋보인다.’- 교수일지, 9주차

2) 나의 기준이 아닌 학습자의 기준

수업의 중간 중간에 갖게 되는 학습자들의 의문점, 혹은 잘못된 예시의 수정사항에 대해 일일이 피드백을 제시해 주기에는 교수자의 시간은 부족하기 마련이다. 왜 어렵게 느끼는가? 움직임의 구간에서 잦은 실수가 반복되는가? 적절한 응용구도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수자의 반성적 수업에서는 이미 숙련자이기에 자신의 눈높이가 아닌 학습자의 눈높이에 항상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자각하게 된다. 특히, 전공 교육이 아닌 교양무용의 수업환경에서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무용의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표현이나 움직임이 유연하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성적 수업은 교수자가 예시의 설명이나 시연의 상황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분석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수정해주는 효

과적인 교수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에 반영하게 된다.

‘머릿 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도저히 연결지어질 수 없다고 말하며, 미안해도 한다. 당연한 일이다. 전공도 아닌 이 춤을 매일 추지도 않는데, 솔직한 모습이다. 지난번 내용을 다시 확인시키려면, 스트레칭부터 다시 해야 할 일이지만, 기다려주고, 질문을 받아주어야 겠다고 마음을 열어버린다. 시간분배를 다시 조정해야겠다.’-교수 일지, 4주차

3) 완성이 아닌 과정 중시

반성적 무용수업은 학습자의 완벽하고 숙련된 결과물의 창조에 목표를 두지 않게 된다. 학습자가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완성된 결과를 재촉하지 않게 되며, 미완 그 자체도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시키게 된다. 기초 기능과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특정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각색하여 응용하게 하는 과제를 제시할 때, 학습자들은 주제의 해석에서부터 구성원들과 토의를 시작하고 그 해석을 기초 움직임에 적용하게 새로운 움직임과 조합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따라서 교양무용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의 과정에 다가서는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게 되며, 이를 다른 주제의 제안과 생각으로 피드백을 제시하는 등 학습자와의 발전적인 상호작용을 이어나가는 실천을 도모하게 된다.

‘순간순간 까르륵 거리기도 하지만, 다른 모듬의 완성도가 신경쓰였는지 초조하게 컴비네이션의 끝을 완성시키는 듯 했다.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 보면, 40명에 달하는 10개의 모듬 구성원 모두가 너무 진지해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정도이다. 경쟁을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진지한 과정을 만들고 있는 듯 해 보인다.’-교수일지, 12주차

IV.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교양교육을 통해 실행되는 무용 강좌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내용 설계와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사례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들은 ‘생각하는 춤’의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각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수업으로 춤에 대한 친화력이 상승되고 이해력이 보다 다각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개인의 학습동기가 간과되는 맹목적인 학점관리를 위한 교양수업에 대하여 지속성을 우려하며 수업과정의 방법의 개선을 제기하였다[13]. 이는 수업 과정의 초점을 두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이 논문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사료된다. 외현적 향상효과가 아닌 자기발현의 계기가 되는 내재적 가치의 교육으로의 교양체육수업의 ‘교육적 가치’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소통을 토대로 문화적 가치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던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14].

둘째, 계획적인 교수법으로 이루어진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이전의 수업과는 차별화된 교양무용수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학습자들은 춤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적극적인 소통이 용이해지고 잠재적 적극성이 실현되면서 또래구성원들과의 원활한 교제로 사회성이 증진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내성적인 부분이 다소 극복되어 자신감도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이다. 이는 대학교양교육의 무용수업으로 학습자들은 신체적인 학습을 통한 정성적 영역에 긍정적인 향상을 주었다는 선행연구[4]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학습자들은 조별활동으로 ‘함께 만드는 춤’을 경험하면서 그룹의 구성원으로써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 협동적인 과제 수행에서의 보람을 언급했다.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조별과제라는 과정을 경험하며 친화력을 통한 협동심 증진과 이에 따른 높은 학습의 보람을 통해 수업만족감이 향상되는 결과로 드러났다. 이는 교양체육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경쟁자에서

동료로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이 되며 총체적인 안목을 습득 하는 기회가 장이 되었다[14]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처럼 무용과 관련한 대학교양수업들은 다양한 학습자들의 특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참여형태에 있어서도 자율성과 다양성을 수용한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어나가는 주도적인 형태를 띠며 결과의 완성도 보다는 과정 지향적인 수업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양무용 수업의 전문적인 학습전략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교육적 노력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의 교양교육으로 학습되는 무용 강좌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내용 설계와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사례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과 일기형식의 매주간의 보고서, 면담, 수업을 진행한 강사의 평가서를 토대로 수업사례에서의 실천적 의미를 탐구하고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생각하는 춤’의 경험이다. 기능적인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춤의 매력과 감성과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학습자들은 춤에 대한 친화력과 이해력이 보다 다각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둘째, ‘소통하는 춤’의 경험이다. 새로운 동료와의 교제, 소극적인 성향의 극복, 상대를 배려하는 춤의 매너에서 춤을 통한 사회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함께 만드는 춤’의 경험이다. 그룹의 한 사람으로써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 협동적인 과제 수행에서의 보람을 언급했다.

교수자의 관점에서 반성적실천으로는 첫째, 다른 전공 영역의 학습자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수용해 주는 것으로 무용의 기초안무와 기능을 투입하는 것이 다소 교수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수업운영일 수 있다는 반성과 함께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움직임에 절대적 가치와 지표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로 학습을 대하게 된다. 둘째,

숙련자이기에 자신의 눈높이가 아닌 학습자의 눈높이에 항상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자각하게 되었고 나의 기준이 아닌 학습자의 기준에서의 설명이나 시연의 상황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분석적이고 단계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수정하여 효과적인 교수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에 반영한다. 셋째, 반성적 무용수업은 완성보다는 학습자가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들에게 완성된 결과를 재촉하지 않게 되며, 미완 그 자체도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시키게 된다. 교양무용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의 과정에 다가서는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 참여한 교양수업 학습자들은 인지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경험하면서 춤이라는 콘텐츠에 대한 한층 심도 깊은 문화의 이해로 보다 성숙된 정성적 부분의 향상이 되었고, 성향의 변화와 이타심 증진으로 사회성에 보다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나’보다는 ‘우리’를 인식하게하는 수업의 과정을 통하여 차별화된 보람과 진전된 책임감을 느끼며 극적인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수업의 반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무용교육은 학생들의 표현적 개성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초안무를 그대로 답습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을 지치게 할 수 있다. 무용활동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고 문헌

- [1] 고대선, 강익원, “교양체육수업 참여동기가 자기 효능감, 수업만족도,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6권, 제2호, pp.943-955, 2009.
- [2] 김동욱, 조한무, “전통적 수업과 자기주도적 개별화 수업 방법 비교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13-128, 2003.

[3] 김은혜, “댄스스포츠 참가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5호, pp.121-133, 2003.

[4] 김이정, 송강영, “교양댄스스포츠 참여 대학생의 스트레스해소 및 학업성적변화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98-408, 2013.

[5] 김종훈,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활용과 형성과정 탐색*, 서울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9.

[6] 김지영, 이철원, 정윤하, “교양체육으로 댄스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참여동기와 여가만족의 관계”, 여가학연구, 제5권, 제3호, pp.71-90, 2008.

[7] 유영옥, *유아교사의 미술수업에 나타난 실천적 지식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8.

[8] 이보경, “대학생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체육문화연구, 제38권, pp.1-23, 2010.

[9] 이정화, 이한주, “고등학생들의 사회,정서 학습(SEL)을 위한 표현활동 무용수업 적용 및 개선 방안”, 대한무용학회지, 제71권, 제3호, pp.91-117, 2013.

[10] 임호용, 황청일, “대학 교양수업에서 교수자 발문행동에 대한 분석연구”, 교육발전연구, 제26권, 제2호, pp.129-149, 2010.

[11] 정희관, *소집단 자기주도학습 모형의 개발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2] 조무남, “교양교육과 대학교육과정 정책”, 체육연구, 제4권, 제1호, pp.91-136, 1994.

[13] 조석민, *대학교양체육 수업만족이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미간행 교육대학원, 2010.

[14] 함지선, 박현애, 김경숙, “교양체육 실기수업 참여 전·후의 수업 이미지 탐색”, 이화체육논집, 제12권, pp.1-14, 2009.

[15] 홍미화, *교사의 실천적 지식으로 읽는 초등 사회과 수업*, 한국교원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6.

[16] F. Elbaz, *Teacher thinking: A study of practical knowledge*, New York: Nichols, 1983.

[17] Y. S. Lincoln and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5.

[18] M. Miles and A.M. Huberman,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4.

[19] L. Richards and J. M. Morse, *Users guide for qualitative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7.

[20]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Sage publications, 1998.

저 자 소 개

박 지 원(Ji-Won Park)

정회원



- 2002년 8월 : 상명대학교 체육학부 무용학사
- 2009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체육학 석사
- 2012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체육학 박사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교양체육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 및 무용교육학, 여가

김 제 영(Jae-Young Kim)

정회원



- 1984년 2월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체육학사
- 1986년 2월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체육석사
- 2003년 2월 :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이학박사
- 현재 :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무용교육, 공연예술

김 지 영(Ji-Young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상명대학교 체육학
부 무용학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체육학
석사
 - 2012년 2월 : 연세대학교 체육학
박사
 - 현재 :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박사후연수 연구원
- <관심분야> : 무용 교육 및 심리